

이기는 삶

부자가 되는 습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 빌 게이츠는 유명한 변호사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부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에게서 환경적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집안 환경이나 학벌은 한 사람의 성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다. 『부자 되는 습관(Rich Habits)』의 저자 토마스 C. 폴리는 22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조사했다.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씩 책을 읽는다는 대답이 88%에 달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2%에 불과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대답도 부자는 86%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26%에 그쳤다. 또 부자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을 메모해 둔다는 대답이 86%였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9%만이 해야 할 일을 기록했다.

또한 부자들은 TV를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본다는 대답이 60%가 넘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20% 남짓만이 하루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부자들은 출근 3시간 이전에 일어난다는 대답이 44%로 절반가량이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3%에 그쳤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는 대답도 부자들이 76%로 가난한 사람들 23%보다 훨씬 많았다.

목표 설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부자들은 67%가 목표를 글로 적어두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17%만 목표를 기록했다. 부자들은 88%가 평생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자기계발에 힘쓴다고 말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5%만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부자들은 84%가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율이 4%에 불과했다. 부자들은 76%가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9%만 그렇다고 대답해 나쁜 습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찍 일어나고, 매일 책을 읽고, TV를 멀리하고, 할 일을 메모해두고, 구

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뚜렷하게 습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잘 준비하게 되고 할 일을 적어두면 할 일을 깜박하고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 경제, 사회, 과학 등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고, TV를 덜 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적어두면 그만큼 목표를 거듭 상기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질 수 있다.

한 가지 사족으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라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체계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습관을 나에게 적용하여 물질적 부와 더불어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기쁨을 누리보자.\*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영생의 길은 사망의 신인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을 짓이기기 위해서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해서 이긴 자가 되고로 여러분들도 반대생활을 해서 이긴자가 되어야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참 생명의 말씀 중에서).

우리로 운동을 하기 싫을 때 반대로 열심히 움직여 다함께 영생의 길로 다가갑시다!

근육운동의 놀라운 효과!!!

근육통은 퇴행성 변화와 비활동적으로 운동범위가 부족해도, 과다 사용으로도 온다. 근육 통증, 관절염 등을 현대인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다. 같은 자세는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장시간 사용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목, 어깨 통증도 생기게 된다. 어깨는 활동범위가 가장 많은 부분이므로 통증이 쉽게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근육 운동을 하면 뼈까지도 단단해지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근육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고 반대생활과 함께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합시다.

① 팔 반대편으로 당기기: 한쪽 어깨를 뒤로 들고 반대편으로 손을 잡아 머리 뒤로 당겨준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로 3회.

② 다리 늘리기: 한 다리는 앞으로 쭉 뻗고 다른 한 다리는 구부려 발을 잡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로 3회.

③ 옆드리기: 무릎으로 앉아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편안하게 옆드린다. 10초 유지, 5회.

④ 옆드려서 상체 들기: 옆드린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너비로 가슴 앞에서 짚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복직근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며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10초 유지, 5회.\*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33회

목운(木運)부터 금운(金運)까지 정도령은 삼인(三人)이니라(三人同七十二)

三人同七十二 삼인동칠십이  
五老仙靈一三仙 오로선령일삼신  
吾人忽覺神化經 오인홀각신화경  
周易陰符其性然也 주역음부기성연아

의 진리 말씀을 홀연히 깨닫고 보니 주역의 음부(周易陰符=하도낙서河圖洛書)의 본바탕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 이더라.

斗牛星其則不遠伐柯君  
두우성기칙불원발기군  
源流長而分連合 원류장이분연합  
然而遠流源長 연합이원류원장  
天耶人耶不知神 천아인아부지신  
神耶人耶不知天 신아인아부지천  
神亦人耶天亦人 신역인아천역인  
人亦神耶天亦天 인역신아인역천  
人之神乎知其天 인지신혜지기천  
神知人乎知其地 신지인혜지기지

두우성(斗牛星) 즉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오신 분은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좌정하신 분(사인불인 천신강인(天人神降)으로서 도끼로 썩은 가지를 찍어내듯 무도불의(無道不義)를 척결하러 오시는 백보좌 심판의 영적 임금인데 생명수가 되는 수원(水源)의 근원이 무한하여 시냇물이나 뉘면서도 이어지고 다시 합해져서 그 흐름이 영원무궁토록 흐르게 되느니라.

하늘이 신이고 사람이 신인데 신을 모르는구나. 신이 하늘이고 사람이 하늘인데 하늘을 모르는구나. 신(神)도 사람이요 하늘 역시 사람이니라. 사람도 신이요 사람이 하늘이니라. 사람이 신(神)임에 그 하늘을 알아라. 신이 사람임을 알기에 그 땅을 알게 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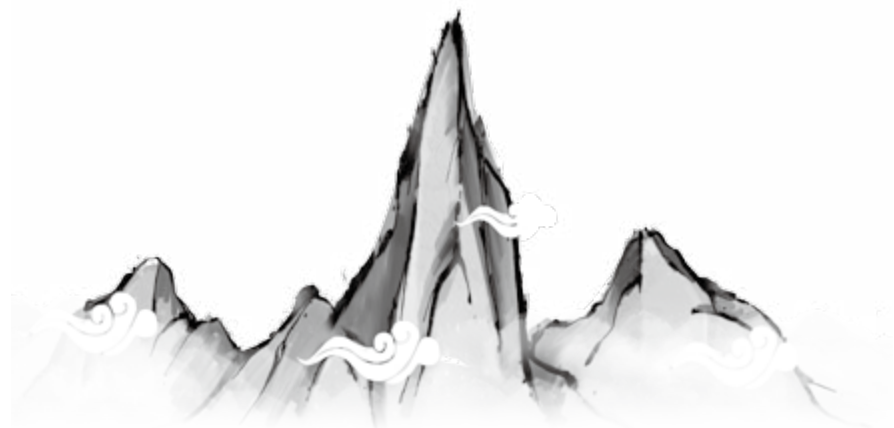
하나님이 인간(81궁 정도령)으로 오셔서 영생의 세상이 되니 구세주 정도령 만만세로다. 하나님의 대도가 엄하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큰 책재과 진리의 검으로 요사스런 마귀를 몰아내느니라.

소리도 없이 밤새도 없이 감로해인을 들고 81궁 정도령(진震괵는 장남으로 81궁)이 베풀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실 적에 마귀를 쫓듯자도 없이 죽여버리고 독한 불기운을 박멸소탕하라라. 천부(天府)는 영부(靈符)요 즉 감로해인은 3천년 동안 모든 경전에 나와 있으나 만 가지가 한 가지로 한 사람 81궁 정도령에게 돌아가니 영부 즉 감로해인의 주인이니라.

마지막 중천운(中天運)에는 삼인(三人)이 동행(同行)하시니 목운(木運) 5도 72궁과 여인 한 분과 마지막 금운(金運) 6도 81궁 정도령이니라. 5도 72궁(오로선령五老仙靈)이 먼저 나와 여인 한 분과 6도 81궁 정도령을 길러 내시며 6도 81궁이 마침내 불사영생을 이루어내게 되어있는 것이다.

일삼선(一三仙)은 육도삼략의 5도 삼건천(三乾天) 십곤지(十坤地)의 과상(卦象)이다. 또한 하락요람(河洛要覽)의 하락합부가(河洛合符歌)에 “곤삼절(坤三節)은 십(十)자 되고 건삼련(乾三連)은 삼(三)자 되니 십곤지중(十坤之中) 건삼련(乾三連)이 열석자가 분명하다.”라고 하였으니 목운(木運) 5도 72궁이 13수임을 밝히고 있다. 육도삼략의 6도 81궁 금운은 14수가 된다.

사람이 신선으로 거듭난다는 정도령



생초지락(八) 생초지락

春三月之花正好 춘삼월지화정호  
天人當時皆春舞 천인당시개춘무  
天降飛火世間上 천강비화세간상  
桑田碧海撲滅魔 상전벽해박멸마  
沒世人間夢外事 몰세인간몽외사  
丹扇指示通世命 단선지시통세기  
極世養生問主人 극세창생문주인  
自立心主定世主 자립심주정세주  
箇箇人心自定主 개개인심자정주

때는 춘삼월의 꽃이 핀 것처럼 보기에 참 좋구나. 정도령의 봄바람(춘풍春風=화풍和風)같은 진리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구나.

삼월은 진월(辰月)이며 진(辰)은 용(龍)을 의미하고 손진계룡의 용이다. 용은 6도 81궁 정도령을 말하기도 한다. 춘(春)은 삼인(三人)과 일(日)로 이루어져있는데 삼인은 삼인동행의 삼인으로 5도 72궁, 여인 한 분 그리고 6도 81궁 정도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오셔서 밝고 밝은 세상을 연다는 의미가 된다.

6도 81궁 정도령 미륵부처님이 하늘의 사람(정도령)으로 출현함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세상이 왔다고 춤을 추리라. 정도령이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천지개벽하라라. 죄인들의 세상은 사라지고 곱박의 일이 되느니라.

정도령이 붉은 부채를 움직여 지시하는 대로 인간 세상에 그대로 통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도다. 인간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당신 스스로 일어서서 마음속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평정시키는 주인공이시며 개개인의 마음을 스스로 안정시켜 주는 주인이시니라.

天一人之萬萬歲 천일인지만만세  
天皇大道嚴可出 천황대도엄가출  
大鞭下驅妖鬼 대면도하구우귀  
無聲無臭震天降 무성무취진천강  
殺魔無毒毒火滅 살마무중독화멸  
符三千秋應萬經 부삼천추응만경  
萬合同歸人一符 만합동귀인일인부

Immortal Valley

물리법칙과 영의 세계

물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당연한 이야기다. 물을 위로 흐르게 하려면 중력을 이기는 힘이 들어가야 한다. 자연법칙을 거스르려면 엄청난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므로 빙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또한 지당한 말씀이다. 상수원은 항상 상류에 있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 근처에서 취수(取水)를 해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표면장력이 강한 영

영의 세계에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영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강한 마음은 약한 마음을 흡수한다. 마치 표면장력이 큰 곳으로 물방울이 합쳐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약한 영은 강한 영에게 설득된다. 따라서 무엇을 해도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이루어진다.

리더는 빙물이다. 리더가 강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대중은 제각각이 된다. 그리고 대중은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리더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직원을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리더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조정력이 탁월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의견들을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끌고 가

야 하기 때문이다.

관성을 거스르는 구세주의 자식들

관성(慣性)의 법칙 또한 영의 세계에 적용된다.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아래로 흐른다. 물이 계속 흘러들면 강이나 호수는 늘 신선함과 풍부한 플랑크톤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은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반면 정체된 물은 썩는다.

영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은 늘 빠르게 움직인다. 반면 마귀의 영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 하나님은 깨어 있어 주위의 모든 것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자유율법에 걸리지 않나 늘 유념하고 있으나 마귀는 멍한 상태로 자신의 습관과 고정관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할 수 있는가?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힘은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힘이므로 엄청난 저항이 있다. 영생교는 모두 죽음을 당하기 하므로 자연법칙을 역행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세주의 자식들이라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엄청난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 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